토막 난 숨길과 여호와

(출6:1~30)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2.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3.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4.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5.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6.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7.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8.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9.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토막 난 숨길과 여호와>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토막 난 숨길과 여호와'
토막 난 숨길이라는 것은 짧은 숨길 즉, 가쁜 숨을 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호와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호와는 선민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어로 GOD인데 세상에는 god이 많습니다. 그 많은 god 중에서 유일하게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하신 사람들에 대해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셨고, 이 여호와가 선민에 대해서 선민의 숨길을 길게 이어주시는 분이시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사는 것을 중단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살기에 바쁘십니까? 그래서 숨이 가빠요?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쁜 숨을 쉴 수밖에 없는 삶을 멈출 수 있게 해주시고, 편안하고 긴 숨을 쉴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숨'이라는 단어는 숨이 지나가는 길이 목인데, 목숨이 길다는 것은 숨길이 길다는 것이고, 이것이 신체적으로 장수한다는 생리적인 의미 외에도 평강에 거하는 삶, 걱정이 없는 삶, 숨을 가쁘게 쉬지 않아도 되는 긴 숨의 삶을 여호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여호와라는 이름에 너희의 숨을 길게 하신다는 의미를 담아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 번 읽으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핵심 구절은 '마음의 상함'입니다.
마음이 상해서 모세가 전하는 여호와의 약속에 대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 상한 상태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으로 역사하십니다.
'마음이 상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미코체르 루아크'라고 합니다.
루아크는 기억하시는 대로 바람, 공기, 영이라는 뜻이고, '미코체르 루아크'는 '숨이 토막으로 짧게 잘라졌다'는 뜻으로, 정상적으로 호흡할 수 없을 정도로 숨이 짧아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숨이 짧아서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경배드릴 것에 대해 기대에 찬 마음을 갖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빠서 하나님을 돌아볼 겨를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숨이 짧기 때문에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대해 기대하지 못하는 상태가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요?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은 숨이 잘라져서 토막이 났다고 했는데, 이것은 생리적인 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호흡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호흡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눈과 귀와 코와 입과 피부의 5감관을 가지고 환경을 접하면, 육체를 통해 접하는 일이나 환경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 마음에 들어온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과 관계해서 내가 행동하게 되는데, 이것이 호흡하는 것이고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눈앞에 가족이 있고, 먹고 살아야 한다는 과제가 있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죽은 사람이고, 눈에 보이면 반응하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숨을 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이해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며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호흡인데, 이 세상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 호흡이 짧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코로 쉽니다.
우리나라 말에 "코앞의 일만 바라보고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학식 개학식이 코앞인데 놀기만 한다. 결혼식이 코앞인데 혼수 준비를 아무것도 안하고 빈둥거리고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숨이 짧아졌다'는 이야기는 계속 코앞의 일만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고, 코앞에 임했다는 것은 가까이 온 공간과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 숨이 짧아졌다는 것은 마음이 상처를 입었다는 뜻이고, 계속해서 코앞의 일만 바라보며 산다는 것이고, 바로 코앞의 일만 바라보고 사니 옆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출근을 하려면 마을버스를 타고 전철을 탑니다. 1호선을 타다가 2호선으로 갈아타고 또 3호선으로 갈아타서 직장에 갑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다른 것을 돌아볼 겨를이 없이 계속해서 움직여야 해요. 그런데 4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 경부선의 새마을호를 탔다면, 앉아서 열차안의 사람도 보고 차창 밖의 풍경도 보고 돌아볼 겨를이 생기는데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코앞의 일만 바라보면 호흡이 짧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대출이자를 내야하는데 지난달에도 못 냈다면 코앞에 닥친 일입니다. 자식의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자식은 나름대로 애를 써서 알바로 200만원을 모았는데, 아빠와 엄마가 나머지를 대줄 돈이 없다면, 이런 상황에서 무슨 하나님께 기도하고 십자가 붙잡고 살라는 이야기가 통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미래를 책임져줄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미래가 문제가 아니라 코앞의 일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짚을 주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전과 같은 수량의 벽돌을 구워내야 한다는 이 코앞의 일 때문에 내 코가 석자가 된 것입니다.

참 코와 관련된 말이 많습니다.
"내 코가 석자"라는 것은 코의 길이가 90cm라는 것인데, 본래 오비삼척(吾鼻三尺)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오비체수삼척(吾鼻涕垂三尺)의 줄임말로, 체(涕)라는 것이 액체를 말하고, 수(垂)는 드리운다는 말입니다. 즉, 콧물이 90cm까지 늘어진다는 뜻입니다.
자기 코에서 콧물이 그렇게 늘어지고 있는데도 제 코를 못 닦고 있는 형편인데, 그 사람 형편에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겨를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 백성들의 콧물이 90cm까지 내려와 있는 것을 못 닦고 있는데, 무슨 광야에 나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자는 얘기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강압으로 코앞의 일을 바라보며 숨이 가빠서 여호와를 경배하기 위해 광야로 나가자는 모세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선민에게 숨이 가쁜 상황을 강압하고 있는 바로를 치시기 시작하시는데, 그 분이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선민들이 가쁜 숨을 쉬며 사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시고, 내 코가 석자인 상태를 두고 보지 못하시고 콧물을 닦아주십니다. 코앞의 일만 바라보고 사는 선민의 모습을 두고 보실 수 없는 분이 여호와이시고,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시며 강조하신 것이, 바로의 강압 밑에서 노예생활을 하고 있는 너희들을 꺼내어 해방시키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코앞의 일을 쫓아가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코앞의 일을 해야 하는 내 코가 석자인 상황으로부터 꺼내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당장 이자를 내야하고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돈다발이라도 떨어뜨려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라고 분명히 약속해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삶에서는 너희가 코앞의 일 때문에 숨을 몰아쉴 필요도 없고, 너희 코에서 나오는 콧물이 석자나 늘어지도록 손도 못 댈 상황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것인데, 한 마디로 이 땅의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이고, 땅을 약속하셨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전환점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본문이 이야기하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당신을 여호와로 알리시면서 이전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그렇게 알리시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창15:2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고, 28:13절에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던 야곱에게 나타나실 때에도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려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알리지 않으셨다’고 하시는데 무슨 이야기냐?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이 같이 있는데, 선민의 공동체를 다른 백성과 구분해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 치신 사건이 아직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관계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지만 지금 이 백성들은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관계하십니다.

이 사람의 집단은 어떤 집단입니까?
출3:14절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드러내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당신의 이름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드러내신 이유는 '여호와'라는 이름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들어있는데, 스스로 있지 않은 것들과 스스로 있는 당신을 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왜 선민들에게 당신을 대비시켜서 드러내십니까?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처럼 너희도 스스로 있는 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지 않은 것들, 있게 해야만 있는 것들 중에서 신을 만들어 섬기고, 있게 해야만 있는 가치들인 돈, 명예, 인기, 건강… 이런 것들이 있는 중에서 스스로 있는 자이신 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위해서 선택합니까?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선택하라고 하신 것인데, 그 분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호흡하므로, 땅에서 코앞의 있는 일들 때문에 바빠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서 하나님으로 숨을 쉬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이 땅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나기도 전인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미리 인생 끝까지를 보시고 이 땅의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하신 것이고, 다시는 이 땅에서 코앞의 일을 보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너희의 코가 석자로 늘어질 필요가 없어서,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둘 수 있을 정도로 마음에 여유와 마음의 평강을 책임지시겠다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물질적으로 풍부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의 원조 격이신 예수님께서는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으셔서 내가 쓰고 남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유라는 것은 마음 자체에서 머리 둘 곳도 없이 가난할 지라도 더 이상 요구하는 바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고, 코앞의 일 때문에 바쁠 리가 없는 것이고, 내 코가 석자가 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선민으로 하여금 코앞의 일 때문에 숨이 토막 나지 않고 길게 숨을 쉬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갖고 하나님으로 호흡하게 하십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으로 호흡합니다. 마음속에 사업을 들여놓고 사업에 대한 계획을 내뿜고, 사업이 잘못되면 개선하기 위해서 계획하며 숨을 쉬며 삽니다.

자식을 볼 때에는 자식을 마음에 담고 더 나아지기 위해서 자식에 대한 나의 소원을 계획으로 실천하면서 내뿜고 다시 들이마시고 숨을 쉽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숨을 쉴 때에는 그 숨길이 길게 늘어지며 그 긴 숨 속에서 평강이 있고, 이것이 짧으면 짧을수록 숨과 삶이 가빠지고, 내 코가 석자가 되어서 다른 것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숨 쉬기 운동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긴 숨으로 하나님을 들이 마시고 내뱉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동안에 이 땅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 빚을 갚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중압감으로부터 빼내시는 과정을 모세가 백성들을 광야로 빼내는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자를 갚아야 하고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 불이 발등에 떨어졌다면, 1시간이라도 2시간이라도 30분이라도 그 일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십자가는 코앞의 일에 대해 죽어서 그 중압감으로부터 벗어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벗어나도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악의 경우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휴학처분을 하게 되었다면, 그게 더 좋으니 그렇게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믿을지 선택하세요.
등록금을 준비하려고 했으나 준비 못해서 자식이 휴학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200만원을 마련했는데 부모가 나머지 300만원도 못 해주냐고 자식이 원망하고 난리가 났다면, 그렇게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게 좋으니 그렇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십자가 붙잡고 코앞에 있는 일에 대해 죽음으로써 하늘의 하나님을 돌아볼 겨를을 찾으려고 하는 선민이라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은 예비하십니다.

선민은 뭐하는 사람이냐?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여호와로 드러내시면서 숨을 길게 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부활과 승천으로 우리의 숨길이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 마음의 숨길이 바로 승천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도달하며 이 숨을 쉬는 자가 선민입니다.
스스로 계신 여호와를 드러내신 이유는, 이 세상 모든 좋은 것과 사람과 돈도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범주에 있고, 하나님 혼자만 스스로 있는 분이시니 스스로 있지 않은 것들과 스스로 계신 분 중에서 선택하라는 것이고, 이게 선민에게 주어진 유일한 과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면, 모든 중압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주시는데, 이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익혀나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지 않는 것들 사이에 살면서 스스로 있는 자를 선택하도록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것이고, 여호와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셔서 숨길을 하늘에 닿게 하시므로, 하늘과 땅이 숨 쉬는 공간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운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행3: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라고 합니다.
‘유쾌하게 된다.’라는 것은 ‘위를 향해서 호흡한다.’라는 뜻입니다.
한 번 그렇게 살아보시지 않겠어요?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코앞에 닥친 일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코앞에 닥친 일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숨이 가빠집니다. 일이 바쁘게 몰아치는 가운데에서라도 마음을 주님 가신 그 길을 통해 하늘로 올려 보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것이 선민이고, 그런 선민이 될 때에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여러분의 지상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바쁜 이유는 놓치고 싶지 않고, 놓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일들로 자꾸 위협을 받으니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바빠지는데, 붙잡은 것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면 여호와가 책임지시고, 긴 숨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코앞의 일을 쫓아가지 말고, 하늘과 땅 사이의 그 숨길을 따라서 숨만 쉬면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상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코앞의 일을 따라가지 않는 숨이 긴 자들의 모임이 이스라엘이고, 그들이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거룩한 공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너머로 마음을 둔 자들의 모임의 신이 바로 여호와이시고,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속성을 지금 성령님께서 수행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마음으로 십자가를 호흡하면서 코앞에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30분 만이라도, 한 시간 만이라도 죽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여호와가 되셔서 나타나심으로 우리의 숨길이 길어지며, 평강과 안정을 누리는 가운데, 이 땅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모습을 보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에게 그 하나님을 증거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